

민주, 그로시 면전서 “日 맞춤형 조사…IAEA 중립성 상실”

오염수 대책위-사무총장 면담
“해양방류 연기하고 대안 찾아야”
그로시 국제기준 부합 재강조
연이은 강한 비판에 한숨·당황도

더불어민주당은 9일 방한 중인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을 만나 “처음부터 중립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일본 편향적 검증을 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책위원회’(대책위) 고문인 우원식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그로시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며 14일째 단식 중인 우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IAEA 입장은 일관되게 ‘오염수 해양방류 지지’였다”며 “주변국 영향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미리 결론 내린 것은 ‘셀프 검증’이자 ‘일본 맞춤형’ 조사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IAEA의 오염수 해양방류 정당화는 주변에 있는 IAEA 회원국에 대한 명백한 권리 침해”라며 “이제 일본은 IAEA 보고서를 오염수 해양방류의 통행증처럼 여기고 수문을 열 타이밍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또 그로시 사무총장이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오염수에서 수명도 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는 “그럴 정도로 안전하다고 확신한다면 물 부족 국가인 일본이 그 물을 국내 음용수로 마시든지 농업·농업 용수로 쓰라고 요구할 의사가 없는지 묻고 싶다”며 “대한민국 국민은 오염수를 마실 생각도, 오염수에서 수영할 생각도 없다”고 쏘아붙였다.

대책위원장인 위성곤 의원은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내용의 IAEA 종합보고서에 유감을 표하면서 “일본이 오염수 해양투기를 연기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다른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 IAEA가 이러한 요구에 함께해 달라”고 요청했다.

위 의원은 “IAEA는 그동안 지적된 일반안전지침(GSG) 위반을 비롯해 오염수 해양방류가 정당하지, 최적의 대안인지 등은 검토하지 않고 일본 정부에 책임을 떠넘겼다”며 “유엔해양법에 대해 검토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지금 이 문제가 (한국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한국을 비롯해 우려를 제기하는 곳이 많아 그 우려를 듣고 답을 줘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민주당 초대에도 응해 면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도출한 결론은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기술적 역할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IAEA는 일본 정부의 방류 계획이 제대로 잘 지켜지는지 완전히 검토하기 위해 수십 년간 일본에 상주할 것”이라며 “IAEA 지역사무소를 후쿠시마에 개설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자신의 모두발언 후 민주당 측의 강한 비판이 이어지자 당황한 기색을 보이기도 했다.

초반에만 해도 몇몇 발언을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으나 이후에는 의자에 등을 대고, 안경을 벗거나 중간중간 한숨도 내뿜었다.

모두발언만 55분간 이어진 가운데 면담장에는 국회 본청 밖 ‘오염수 방류 반대 단체 시위소리가 새어 들어오기도 했다.

앞서 대책위는 IAEA의 종합보고서가 발표되자 지난 6일 IAEA 측에 면담을 요청했다.

지난 7일 일국한 그로시 사무총장은 8일 유국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 이어 박진 외교부 장관과 만나 IAEA 종합보고서 내용을 설명했다.

그는 이날 오후 출국해 뉴질랜드를 비롯한 태평양 도서국을 찾을 예정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대책위원회 고문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책위원회-국제원자력기구 면담에서 그로시 사무총장에게 원전 오염수 처리 비용과 관련된 자료를 보여주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통령실, MZ 세대 공무원 수혈...뉴미디어실 전원 2030

해수부·국토부서 2명 충원

대통령실이 뉴미디어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 부처 MZ 세대 공무원들을 충원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홍보수석실 소속 뉴미디어비서관이 9개월째 공석인 가운데 청년 행정관들을 전진 배치, 젊은 층에 다가갈 수 있는 콘텐츠 제작에 심혈을 기울이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평장지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부처 출신 행정관 2명이 내일부터 뉴미디어비서관실에서 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합류하는 해양수산부 출신 허서영(35) 행정관은 메타버스 기반 게임 ‘마인크래프트’를 활용해 ‘스마트 항만’을 홍보, 호응을 얻은

적 있는 재원이라고 한다. 게임 안에 스마트 항만 전용 맵을 구축해놓고 유명 유튜버 ‘양팡’의 트위치 TV 채널을 통해 공개해 일반인들이 항만 내부를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출신 정승이(39) 행정관은 청년 정책 담당으로, 온라인 채널을 구성해 청년들에게 주택 마련 등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정 행정관은 지난 1월 국토부 산년 업무보고 때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직접 마이크를 잡고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뉴홈’ 정책 등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들은 앞서 뉴미디어비서관실에서 근무하다 사직한 직원들의 빈 자리를 채우게 된다.

이들보다 먼저 이 비서관실에 합류한 박형진(35) 행정관 역시 안산시청 비서관으로 시에서 청년 정책을 맡았으며, 관내 대학 연합 축제 기획

등에 참여한 30대다. 나머지 행정요원 3명 모두 90년대생으로, 대통령실에서 유일하게 구성원 모두가 30대 이하의 MZ 세대로 이뤄진 점이 눈에 띈다.

이는 기득권과 이권 카르텔의 거센 반발에 맞서 싸운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청년을 내세우는 윤 대통령의 평소 구상과도 부합한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일 주재한 청년정책 점검회의에서 “저는 사실 여러번 때문에 대통령이 된 사람”이라며 “청년들이 선정해주는 어젠다, 그들이 나한테 가르쳐주는 메시지를 갖고 국민에게 호소했더니 엄청난 지지를 받아 이 자리에 오게 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대통령실 조직 개편은 김대기 비서관실 예고대로 상시 진행 중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 2%p 올라 38%

갤럽 조사...국힘 33%·민주 32%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전주보다 소폭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7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38%, 부정 평가는 54%로 각각 나타났다.

긍정 평가는 직전인 6월 5주차(지난 27~29

일) 조사보다 2%포인트(p) 올랐고, 부정 평가는 2%p 내렸다. 이외 ‘어느 쪽도 아님’ 2%, 모름 또는 응답거절 6% 등이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20%), ‘결단력/추진력/혁신’, ‘국방/안보’, ‘노조 대응’(이상 6%), ‘공정/정의/원칙’, ‘주관/소신’, ‘부정부패·비리 척결’(이상 4%) 등이 꼽혔다.

부정 평가 이유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17%), 외교(13%), 독단적/일방적(10%), 경

제/민생/물가, 일본 관계(이상 5%), 소통 미흡,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통합·협치 부족, 교육 정책(이상 4%) 등이 거론됐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3%, 더불어민주당 32%로 조사됐다.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와 같았고, 민주당은 2%p 내렸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은 30%, 정의당은 4%였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3.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日 오염수 방류 한일 실무협의 재가동하나

외교부 “적절한 채널로 협의 계속”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방류를 위한 준비를 모두 끝내고 방류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가 추가 대일 협의에 나설 전망이다.

일본이 구체적인 방류 시기와 계획을 확정하기까지 또 한 번 한일 간 복잡한 외교적 ‘수 싸움’이 벌어질 수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9일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한 한일 간 향후 외교 협의 계획에 대해 “그간 여러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측과 소통·협의를 해왔다”며 “앞으로도 적절한 채널과 방식을 통해 협의를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7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이 “계획대로 지켜진다면 배출기준과 목표치에 적합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담은 우리 측 검토 보고서를 공개했다.

다만 “정부의 최종적인 입장은 일본의 방류 최종 계획이 확정돼서 발표되는 단계에서 표명할 것”(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일본의 최종 방류 계획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한일 간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내의 관심이 큰 대목은 구체적인 방류 시점이다.

일본은 IAEA 종합 보고서 공개와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해양 방류 실시 합격증 교부 등 방류를 위한 전제조건을 사실상 갖춘 상태지만 아직 방류 시기는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의 수도 플랫폼 무안 The 26th Muan Lotus Festival

한 여름 피어나는 백련의 향연

무안 연꽃 축제

2023. 7. 20. (목) ~ 7. 23. (일) | 무안군 회산백련지

무안군/무안군축제추진위원회